

지방자치연감 활용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

- 「2010년도 지방자치연감」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 관련 분야별 지역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, 이를 통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역정책 추진 및 지방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
- 「2010년도 지방자치연감」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“자체값, %, Z*(표준정규화 점수 재변환)”값을 가지고 있으며,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청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자료를 활용·가공하여 지표값을 산출하였음
- 본 연감에 수록된 지표 중 “Z*”값은 각 지표별로 측정치에 대하여 평균 0, 표준편차 1의 표준정규화점수(Z-score)로 변환시킨 후, 각 지표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전제 하에 해석이 용이하도록 평균 50, 표준편차 10으로 재변환 시킨 값을 의미함
- 따라서 개별 자치단체가 전체 지역의 점수분포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상대적으로 자가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고, 그 결과 정규화점수(자치단체 집단 내 상대적 위치)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백분위수 등의 상대적 위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별 비교를 목적으로 순위를 제시하고는 있지 않음

- 더욱이 단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순위 매김을 통해 지역간 비교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없음
- 예를 들어, 지역안전도 지표(Z^*)는 인구 1천명당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정규화시켜 0점부터 100점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 50점이 되도록 한 후, 230개 시군구 및 15개 시도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의 점수분포임(안전도 및 안전사고증감률을 비율(%)로 해석할 수 없음)
- 그러나 지역안전도 및 안전사고 증감률의 경우, 시계열적 변동과 인구밀도, 계층구조, 도시화정도, 도시계획, 교통 및 주거특성 등 지역별로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, 상기와 같은 단일지표의 단년도 가공수치만 가지고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도와 관련 정책 및 자치단체의 노력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- 연구원에서는 동 연구의 결과가 연구목적 및 의도한 활용방안과 달리 지역의 이름이 제시된 일련의 자치단체들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임